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 I 의원연구단체 현황

- 연구단체명: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 활동기간: 2024. 4. 15.~11. 30.
- 구성의원: 총 7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1	대표의원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2	의원	김춘수	기획행정위원회	
3	의원	박용갑	환경경제안전위원회	
4	의원	김미연	기획행정위원회	
5	의원	백슬기	환경경제안전위원회	
6	의원	홍순서	기획행정위원회	
7	의원	심우창	복지도시위원회	자문위원

- 자문위원: 총 5명

연번	직책	성명	소속	비고
1	연구단체 자문위원	조 은 상	인천 서구 주민자치회 협의회 회장	
2	연구단체 자문위원	박 철 민	청라1동 주민자치회 회장	
3	연구단체 자문위원	임 성 은	청라2동 주민자치회 회장	
4	연구단체 자문위원	김 가 영	인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계이사	
5	연구단체 자문위원	민 혁 기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팀장	

- 연구용역: 총 2명

연번	직책	성명	소속	비고
1	소장	이혜경	협동조합 마을N사람 마을자치연구소	책임연구
2	이사장/연구원	윤희숙	협동조합 마을N사람 마을자치연구소	공동연구

## II

## 연구개요

### 연구주제

- 서구형 지방자치(공동체) 거버넌스 모델 및 정책과제 연구

### 연구목적

-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구형 지방자치 정책 연구
- 지역(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독립을 위한 주민세 특별회계 및 마을사업을 통한 다양한 재원 조성 등 예산제도 연구
- 특별회계 재정 활용 및 주민자치 거버넌스 사례연구를 통해 우수한 정책사례 공유와 서구의회의 역할 제시

### 연구내용

- 기존 지역(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논의
- 공동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력 향상 방안 연구
-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방안
- 지역자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자산화 모델 연구

## III

## 세부 연구활동

### 주요 활동

연번	날짜	장소	활동내용	비고
1	2024. 5. 17.	의원간담회장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제1차 정기회의	
2	2024. 6. 19.	의원간담회장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연번	날짜	장소	활동내용	비고
3	2024. 8. 20.	세종특별자치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1차 사례연구 현장방문(세종시의회, 대전세종연구원)	
4	2024. 9. 12.	의원간담회장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민·관·학 토론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5	2024. 10. 31.	경기도 파주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2차 사례연구 현장방문(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정 주민자치센터)	
6	2024. 11. 1.	의원간담회장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연구용역 결과보고
7	2024. 11. 5.	서울특별시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3차 사례연구 현장방문(강북구)	
8	2024. 11. 13.	의원간담회장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제2회 정기회의 및 간담회	
9	2024. 11. 15.	인천서구의회 외 22곳	자료집(연구보고서) 제작 및 배포	120부

#### 제1회 정기회의 및 간담회

-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11:00~14:00
- 장소: 의원간담회장
- 참여인원: 6명
- 주요내용
  -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자문위원 위촉 논의
  - 연구회 용역 착수를 위한 과업 내용 및 방향 논의
  -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및 벤치마킹 지역 논의
  - 정책연구회 활동 방향에 대한 공유

####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4:00~15:00
- 장소: 의원간담회장
- 참여인원: 12명
- 주요내용

- 「서구 주민 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벤치마킹 지역 선정 및 일정 협의
- 서구형 맞춤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 정책연구를 위한 시민토론회, 전문가 인터뷰, 선진사례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 □ 1차 사례연구 현장방문(세종시)

- 일시: 2024년 8월 20일(화) 09:00~19:00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회,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사회적경제 공동체센터)
- 참여인원: 15명(※현장 참여 인원 제외)
- 주요내용
  - 세종형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스템. 주민자치회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도움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의 재정을 지원하는 핵심 예산 구조로, 주민세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치사업과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함. 이를 통해 주민 숙원사업 및 소규모 마을계획 사업을 실현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해짐
  - 주민자치회의 기획과 예산 배분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행정이 민간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함. 다만, 제도적 한계와 주민 갈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 민·관·학 토론회

○ 일시: 2024년 9월 12일(목) 14:00~18:00

○ 장소: 의원간담회장

○ 참여인원: 15명

○ 주요내용

- 인천 서구 보조금은 주로 민간보조가 많고, 법령상 운영비 지원이 제한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보조금 운영 절차 개선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 제공 다양화, 복지사업 개발, 이용자 자립 촉진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새로운 프레임을 도입, 유연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이 강조됨
-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같은 앵커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과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음
- 세종시 사례처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연동시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며, 공익사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과 마을공동체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함
-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적용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과 의회의 지속적 참여가 요구됨

## □ 2차 사례연구 현장방문(파주시)

○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09:00~17:00

○ 장소: 경기도 파주시(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파주시 운정주민자치센터)

○ 참여인원: 12명(※현장 참여 인원 제외)

○ 파주시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 측정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 소개
- 주민의 참여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의 추진 방안 설명
-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활용한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례 공유
- 사회적가치 성과측정의 장점(마을 · 지역의 지속가능성 상승/새로운 사회서비스 확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에서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회 진행/수혜집단이 얻은 편익을 점수가 아닌 화폐가치로 보여줌에 따라 여신 가능성 향상/경영과 행정 측면에서의 경험 향상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향상)

○ 파주시 운정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주도 의제 발굴과 문제 해결 활동 소개
- 생활공예, 건강, 외국어 등 65개 강좌 운영을 통해 주민 자기개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주민총회와 합동 워크숍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자치활동 확대 방안 청취
-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주민자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상금으로 우수사업비를 수여함(대상 1억 원, 최우수상 5천만 원, 우수상 3천만 원, 장려상 2천만 원)

□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10:30~13:00
- 장소: 의원간담회장
- 참여인원: 12명

○ 연구 목적 및 배경

- 서구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모델 제시
- 세종시 및 파주시 사례 연구와 현장 조사(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를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사례 분석: 세종시의 자치분권 특별회계와 파주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설문조사 및 활동가 FGI(심층 인터뷰):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참여자의 의견 수렴 및 현황 파악
- 민관학 전문가 토론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각적 논의 진행

○ 연구 결과

- 법제도 도입 필요성(자치분권 특별회계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주민 공론장 및 주민세 활용 방안을 통한 인식 확장과 실행 전략 마련)
- 통합지원체계 구축(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마을자치생태계와 관련된 통합부서 설치로 행정과 민간의 협력 강화)
- 협력적 거버넌스 실행(민관학 워킹그룹 운영 및 정기 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 실행 점검/마을정책 생산 협력회의로 행정,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정책적 시사점

- 안정적 재원 확보의 중요성: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주민 주도적 재정 운용 가능
-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법제도 도입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치역량 강화
-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실행 체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가능

- 지역 맞춤형 모델 도입: 세종시와 파주시의 사례를 기반으로 서구만의 독창적인 거버넌스 모델 설계 필요

○ 실천 전략

- 조례제정 TFT 구성 및 실행: 자치분권 특별회계 및 사회성과보상조례 도입 추진
- 주민공론장 개최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및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네트워크 강화

○ 결론

- 본 연구는 서구가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함
- 주민자치와 행정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정책 실행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 3차 사례연구 현장방문(서울 강북구)

○ 일시: 2024년 11월 5일(목) 09:30~15:00

○ 장소: 서울시 강북구의회

○ 참여인원: 15명

○ 번1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성과

- 강북구는 서울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13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
- 주민자치 교육, 홍보, 성과공유회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의제를 선정함
- 2022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강북구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2년 연장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을 지원함

○ 주민자치회 주요 사업 및 성과

- 주민자치회의 교육 및 홍보 강화: 각 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과 회계 투명성을 위한 보태기 시스템을 사용
- 주민 의견 반영 및 자치활동 강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 안전,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마을복지 사업: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물놀이 행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린이 복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환경개선 활동: 골목 청소와 환경개선 활동, 탄소중립 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정비 활동을 확대함

○ 개선 방안

- 업무 과중 문제: 민간위탁 종료 후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 추가 배치 및 간사 매뉴얼 제작 등의 방법으로 대응 중
-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립성 확보 필요: 중간지원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자치 활동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응하여,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과 주민 자치회간 교류 확대 계획

○ 향후 계획

- 2025년에는 주민자치회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인력 추가 채용 계획
- 주민자치회 예산과 각 동별 운영비를 확보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 동영상 제작,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 개선을 지속할 예정

□ 제2회 정기회의 및 간담회

- 일시: 2024년 11월 13일(금) 11:00~13:00
- 장소: 의원간담회장
- 참여인원: 8명
- 주요내용

-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활동 성과 공유
-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소회 및 총평 등 의견 수렴
- 향후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 □ 자료집(연구보고서) 제작 및 배포

- 제작부수: 120부
- 배포처: 인천서구의회 외 22곳
- 주요내용
  -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제작
  - 연구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연구보고서 제작에 도움을 준 유관 단체에 연구보고서 배포
  - 향후 인천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

## IV 주요성과 및 총평

#### □ 주요성과

##### ○ 제1회 정기회의 및 간담회

- 내실있는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도모하기 위해 타 지역의 우수 지방자치모델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서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 현장 중심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실질적 정보 수집 및 연구로 서구형 맞춤형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 활동
- 주민자치회 현장경험과 마을공동체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다양한 의견 및 맞춤형 자문 수렴
-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 및 실현방안 마련

##### ○ 1차 현장방문(세종시)

- 제도적 보완: 세종시의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했지만, 기획 능력과 예산 배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 형성: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봉사나 활동으로 그칠 수 있음. 이를 생활 정치 영역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행정과의 협력: 세종시의 사례는 행정이 서비스만 제공하기보다는 주민과 협력하는 형태로 변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함
- 갈등 해결과 참여 확대: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세종형 주민자치와 자치분권특별회계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점과 갈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주민자치회의 기획력과 예산 배분 권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 또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넘어서는 전략이 요구됨
- 궁극적으로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행정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해야 함

- 따라서,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은 제도적 보완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건강한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 민관학 토론회

- 마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구 주민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클린하우스, 공원 관리 등의 공공사업을 지역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지역사회 발전기금 조성 사례를 통해 마을 자율성을 증대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서구 마을공동체의 공모사업 참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의 유연성 확대, 행정서류 간소화, 회계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 마을과 행정의 연대 강화, 공무원의 공동체 이해 증진, 활동가의 인정과 수평적 관계 유지 등을 통해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파주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율적이고 신중한 예산 사용을 유도하고, 주민자원 활용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경험을 제시함
- 무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아이디어 확장과 자율성을 존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함
- 서구의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를 파악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와 주민자치 연계 가능성을 연구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우수사례를 통해 의회, 행정, 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여 사회성과보

상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 필요

-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 제정과 사회성과보상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주민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정책적 지원 필요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지자체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 2차 현장방문(과주시)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민간 자원 활용과 주민 주도 정책 효과를 돌아보고, 과주시 사회적경제 모델을 참고하여 서구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서구형 사회적경제 모델 도입 가능성을 타진함
- 과주시의 주민총회와 워크숍 사례를 바탕으로 서구 주민자치회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주민 자율성과 자치 역량을 높일 방안을 모색함
- 과주시 현장방문은 서구형 사회적경제 및 주민자치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과주시의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및 주민자치 모델을 서구에 맞게 적용하여 주민주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 연구 결과에서 예상되는 주민세의 증가와 관련하여, 검단 분구가 예상되면 실제로 주민세가 감소할 수도 있음.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용역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성과 보상 조례와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의 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두 조례가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들이 왜 주민세를 내는지, 그에 대한 인식 부족한 상황이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주민세를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재원 확보와 정책 실행의 중요성: 정책 연구가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필요함. 주민세 및 특별회계 활용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주도 지방자치의 실현 가능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조례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정책의 지속성과 협력: 연구회의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행정, 주민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견 교환이 중요함
- 기존 사례의 벤치마킹: 세종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서구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서구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여 주민의 참여와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 공론장의 필요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3차 현장방문(서울 강북구의회)

-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은 서울시 지원을 바탕으로 확대되었으나, 민간위탁 종료 후 자립적 운영 체계가 절실했음. 특히, 예산과 인력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지속 가능한 자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차원에서 자체적인 주민세 특별회계 도입 등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중간지원 조직의 유무에 따라 초기 진입에 영향을 받음. 중간지원 조직은 주민자치회를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며 서류 업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접근하도록 도움을 줌. 이를 통해 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 강북구에서는 해당 조직이 해체된 상황이라 2기 자치회 운영의 어려움이 예측됨
-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청년층의 참여율이 낮고, 60대 이상 비율이 높다는 점은 연령별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자치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활동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함
- 강북구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 개선, 복지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자치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함. 이와 같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치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자치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의 자립성이 약해지고 있으며, 중간지원 조직 또는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향후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구차원의 재정적, 인적 자원 확보와 연령대별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임.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반이 구축될 때 자치 활동의 진정한 자립과 지속 가능성이 가능함

## ○ 제2회 정기회의 및 간담회

-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 실질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 및

## 후속 계획 논의

- 김원진 대표의원: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가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용갑 부의장: 이번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보니 매우 긍정적입니다. 김원진 위원장님의 리더십과 연구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과가 서구의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김미연: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지만, 대표님의 훌륭한 리더십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춘수 의원: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협력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성과가 정책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에도 단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홍순서 의원: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라는 이름과 그 활동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고, 주민주도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구 결과가 서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선두에 설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백슬기 의원: 이번 연구회의 성과가 내년에 실질적인 조례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주민세 증가와 관련된 재정적 부분에 대해 신뢰성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 심우창 의원: 늦게 합류했지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회가 이끌어낸 성과와 여러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책 실행과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남은 의정 활동에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24.5.17.)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24.6.19.)



1차 사례연구 현장방문(24.8.20.)



1차 사례연구 현장방문(24.8.20.)



민·관·학 토론회(24.9.12.)



민·관·학 토론회(24.9.12.)



2차 사례연구 현장방문(24.10.31.)



2차 사례연구 현장방문(24.10.31.)



연구용역 결과보고회(24.11.1.)



3차 사례연구 현장방문(24.11.5.)



3차 사례연구 현장방문(24.11.5.)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24.11.13.)

전국매일신문 인천 서구의회,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박차

HOME > 지방의회

## 인천 서구의회,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박차

☞ 인천/명항수기자 | ☞ 승인 2024.08.21 16:08 | ☞ 댓글 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세종시의회 방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활동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해 연구와 제도가 사업과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시는 2019년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했다.

신아일보 서구의회, 주민 주도 거버넌스 모델 개발 위한 파주시 현장 방문

HOME > 토론포 > 인천

## 서구의회, 주민 주도 거버넌스 모델 개발 위한 파주시 현장 방문

☞ 박주용 기자 | ☞ 승인 2024.11.01 17:12 | ☞ 댓글 0

『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현장을 탐방했다.

이번 방문은 서구형 주민주도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 연구와 파주시의 주민주도적 인 지역사회 운영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언론보도: 전국매일신문 (<https://www.jcorm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27>)



인천 서구의회가 주민들이 이끄는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구축에 머리를 맞대 주목된다. 4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는 지난 1일 이번 과제의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관할 지자체가 직연한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자립적 발전 차원에서 제도·정책적 방안을 탐색하는 게 목표다. 연구는 세종시 자치분권 특별회계, 파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등 기존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민관학 토론회가 이어졌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자체적 거버넌스 모델 마련을 비롯해 통합 지원체계 강화(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통합적 지원)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전문성 강화 등이다. 김원진 대표의원은 "서구 주민이 주체가 돼 자치 역할은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회에는 김원진·박용갑·김순수·홍순서·백필규 의원 외에도 여러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향후 연구회는 담당 부서와 업무협력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김순수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보도: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37>)



인천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강북구의회 방문 (사진/인천서구의회)

(서울일보/임용배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11월 5일 서울 강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주민주도의 지방자치 운영 모델을 연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강북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통해 서구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강북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배우고자 서구에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강북구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22년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구비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자치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치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강북구는 마을자치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인력을 채용해 주민자치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원병희 번1동 주민자치회장과 김기주 간사의 안내로 번1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를 청취했다. 번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어린이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물놀이 축제' 등을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한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김원진 대표의원은 "강북구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으로 운영된 성과가 매우 인상 깊다"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주도형 자치 모델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해 홍순서, 백필규 의원이 참여했으며,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과 조윤섭 부의장, 최인준 운영위원장, 박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이 함께하여 두 지역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는 이번 방문을 끝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참고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서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다.

언론보도: 세계일보 (<https://m.segye.com/daumview/20241104509177>)

언론보도: 서울일보 (<https://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050>)